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경제상황 평가(2024년 7월)

-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수출 개선세 힘입어 5월 전망금년 성장률 2.5%에 대체로 부합하는 성장세 지속
 - 하반기부터 내수경기도 점차 나아지면서 수출·내수 온도차 줄어들 것
- 소비자물가 상승률, 농산물가격이 상당폭 둔화되면서 예상을 소폭 하회
 - 앞으로도 둔화추세 이어가겠으나, 환율·유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상존
- **BOX**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 수출 개선 덕분이지만 내수 회복 지연도 영향

한국은행은 2024년 7월부터 경제상황 평가에 주요 이슈 분석 **BOX** 을 새롭게 확충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경제상황 평가(2024년 7월)** 참조

[문의처: 조사국 · 경제모형실]

세계경제: 국제종합팀 (02-759-4280) 경제성장: 조사총괄팀 (4202) 경상수지: 국제무역팀(4268)
물가: 물가동향팀 (4231) 고용: 고용분석팀 (4291) 경제모형: 모형전망팀(4185)

공보관: 02-759-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붙임>

경제상황 평가

2024년 7월

| | |
|--|----|
| I. 세계경제 | 1 |
| II. 국내경제 | 2 |
| BOX 최근 수출 개선에도 수입이 부진한 배경 | 5 |
| <부록 1>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 9 |
| <부록 2> 주요 이슈 분석 발간 목록..... |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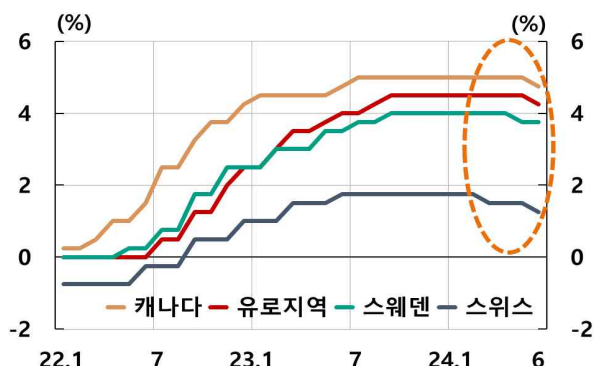
한국은행
BANK OF KOREA

- ▶ 국내경제는 수출 개선에 힘입어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겠으며, 하반기부터는 수출·내수간 성장속도 차이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 ▶ 물가상승률은 월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근원물가의 하향안정 흐름 지속, 지난해 유가·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I.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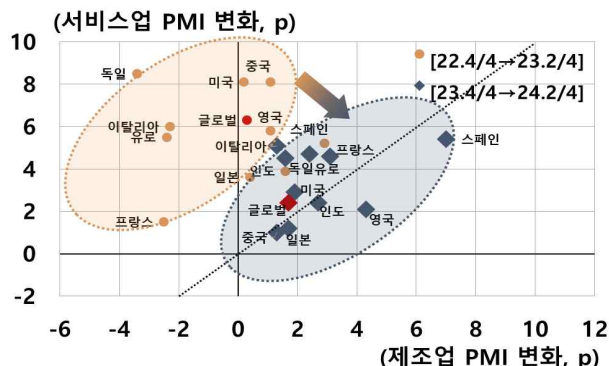
- 주요국 물가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긴축기조가 일부 완화되었다.
 - 주요국 물가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ECB 등 일부 중앙은행이 정책기조를 전환했으며, 미국도 금년중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시기·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세계경제는 누적된 통화긴축 영향에도 높은 **감내력(resilience)**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은 최근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약화되었으나 양호한 고용상황, AI 관련 투자를 바탕으로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지역**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계실질소득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흐름을 나타냈으며 향후 내수 부진도 완화되면서 금년중 4%대 후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 정책금리



자료: 각국 중앙은행

국가별·업종별 PMI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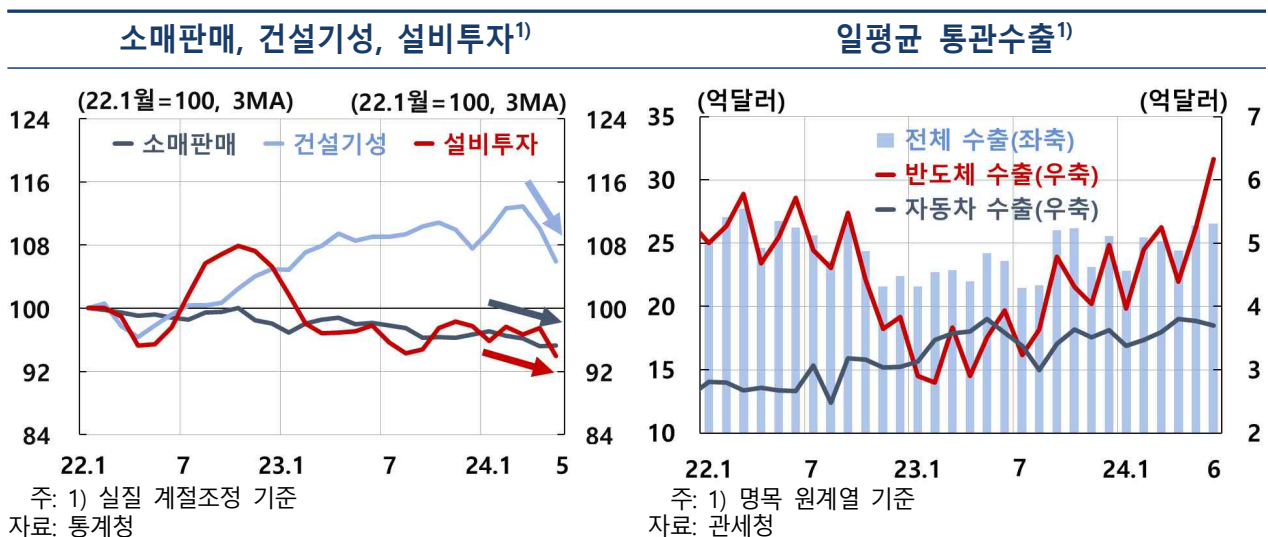


자료: S&P Global, JPMorgan

- 성장의 부문별 불균형도 완화^{balanced} 되는 모습이다. **서비스업** 경기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도 AI 관련 투자 지속, 신흥국 재고 투자 반등 등으로 회복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세계교역**은 상품 교역을 중심으로 회복되겠지만 주요국간 무역갈등 심화로 그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전망이다.

Ⅱ. 국내경제

- 국내경제는 수출 개선에 힘입어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겠으며, 하반기부터는 수출·내수간 성장속도 차이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 **2/4분기 성장**은 전분기의 일시적 개선 요인이 사라짐에 따라 예상대로 상당폭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은 IT 수요 확대, 방한 외국인 증가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나타낸 반면 내수는 회복이 지연되었다. 소비와 건설투자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시적 요인이 소멸됨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설비투자는 항공기 도입 차질 등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 **하반기 이후**에는 양호한 수출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실질소득 개선, 수출 증대에 따른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 등으로 내수도 점차 개선되면서 완만한 회복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올해 GDP성장률**은 지난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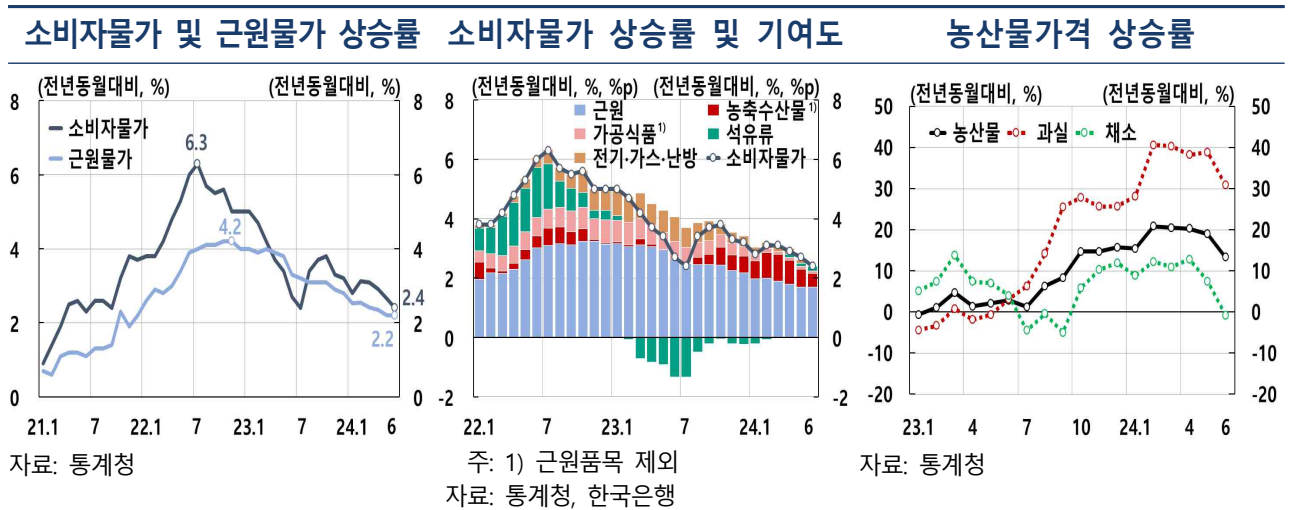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의 둔화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농산물가격 오름세가 상당폭 축소되면서 하방압력이 다소 커졌으나 유가·환율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 **2/4분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을 소폭 하회하였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의 낮은 오름세(6월중 2.2%)를 이어가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상당폭 둔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중 2.4%로 낮아졌다.

■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 있겠으나, 근원물가 등 기초적 물가의 하향안정세, 지난해 유가·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둔화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이를 종합하면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 수준을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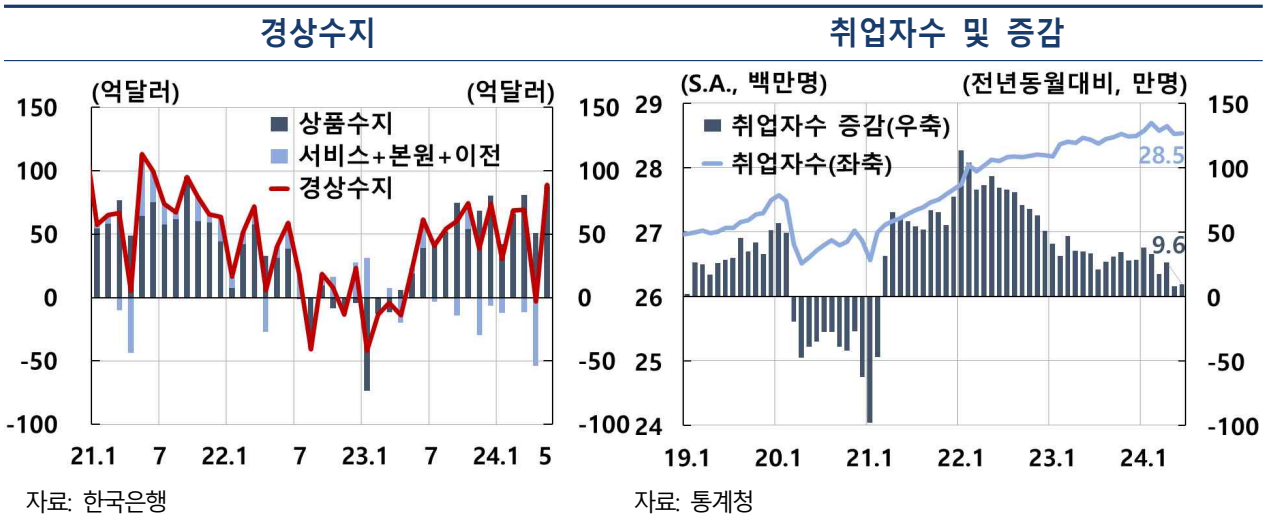
□ 향후 성장 및 물가 흐름은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과 이에 따른 환율 움직임, 美 대선 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에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평가된다. 물가 측면에서는 기상여건과 공공요금 인상 폭·시기도 주요한 불확실성 요인이다.

□ 경상수지는 금년중 흑자규모가 당초 전망^{600억달러}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품수지**는 수출이 글로벌 제조업경기 회복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고 수입은 완만한 내수회복, 일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당초 예상을 하회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수지**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호조로 적자폭이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 취업자수는 연간 증가규모가 지난 전망^{26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5~6월중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이에는 기상 여건 등 일시 요인의 영향도 일부 있지만, 건설경기 부진과 소비회복 지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 **앞으로** 취업자수는 제조업은 업황 개선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겠으나 서비스업은 도소매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은 건설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 이 보고서의 집필자는 국제무역팀 남석모 과장, 최 준 과장, 정영철 과장, 조윤해 조사역입니다.

* 대표 집필자: 조사국 국제무역팀 남석모 과장(02-759-4268)

최근 수입 동향

우리나라는 경제구조 특성상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과거 패턴과 달리 수입은 감소세를 지속¹⁾하고 있다.^{<그림1>}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크게 확대²⁾되었다.^{<그림2>} 2023년 이후 수입^{통관수입} 흐름을 성질별로 보면 원자재^{기여율 68%}와 자본재^{22%}가 크게 부진하였는데,^{<그림3>} 원자재는 주로 단가 하락³⁾에, 자본재·소비재는 물량 감소에 주로 기인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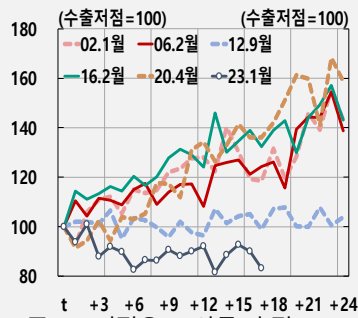
수입둔화는 경상수지를 키우는 요인이지만, 그 원인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⁵⁾. 예를 들어 자본재수입^{설비투자}이 장기간 감소할 경우 우리 경제 생산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부진한 배경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수출회복기에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

수출 개선에도 수입이 부진하여 무역흑자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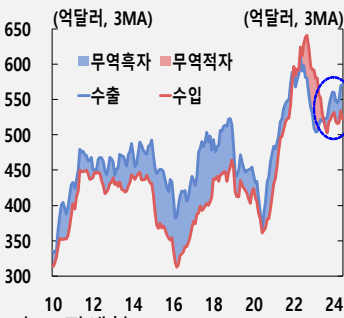
23.1/4분기 이후 수입 감소는 주로 원자재와 자본재가 주도

[그림 1] 수출회복기 수입증가패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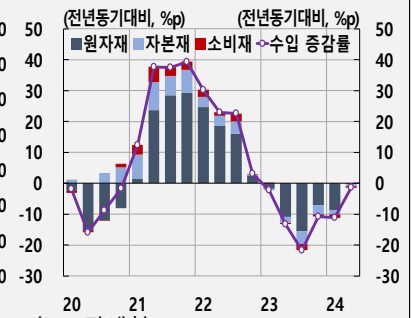
주: 1) 저점은 조사국 추정
자료: 관세청

[그림 2] 수출입 흐름



자료: 관세청

[그림 3] 수입 증감률 성질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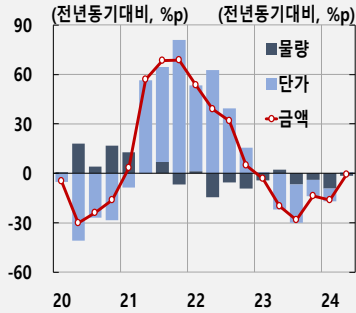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 1) 총수입 증감률(전년동기대비): 23년 -12.1% → 24.1/4 -11.1% → 2/4 -1.4%
- 2) 23.4/4~24.2/4분기중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69억달러 증가하는 동안 수입은 407억달러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 3) 두바이유가(기간평균, 달러/배럴): 21년 69 → 22년 97 → 23년 82 → 24.1/4 82 → 2/4 85
유럽천연가스(기간평균, 유로/MWh): 21년 48 → 22년 133 → 23년 41 → 24.1/4 28 → 2/4 32
- 4) 다만 24.2/4분기에는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물량·단가 요인이 혼재하는 모습이다.
- 5) 언론 등에서 언급되는 불황형 흑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지칭하며, 지금과 같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원자재 감소는 주로 단가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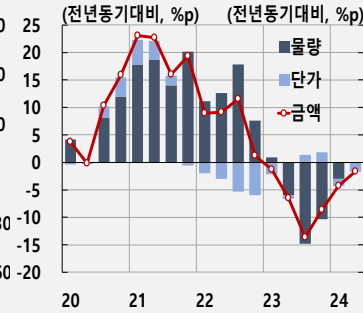
자본재와 소비재는 주로 물량요인

[그림 4] 원자재 수입 물량·단가 증감률



자료: 관세청, 한국은행

[그림 5] 자본재 수입 물량·단가 증감률



자료: 관세청, 한국은행

[그림 6] 소비재 수입 물량·단가 증감률



자료: 관세청, 한국은행

수입이 부진한 배경 및 평가

① 경기적 요인 : 내수 회복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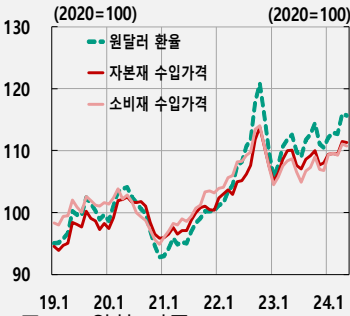
최근의 수입 감소는 먼저 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인해 국내 투자와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7>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설비투자¹⁾와 재화소비²⁾는 금년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그림8, 9> 이에 따라 자본재³⁾반도체장비와 소비재⁴⁾승용차 수입도 함께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환율 상승은 자본재·소비재 수입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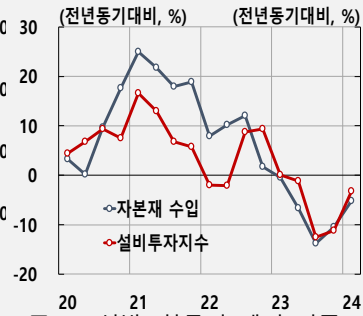
자본재 수입과 설비투자 감소

소비재 수입과 소매판매액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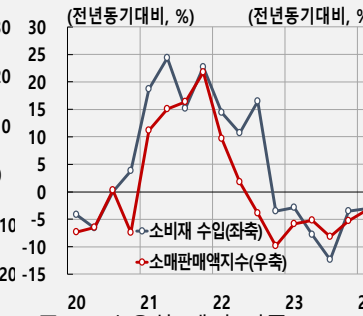
[그림 7] 환율 및 자본재·소비재 수입가격¹⁾ [그림 8] 자본재 수입¹⁾ 및 설비투자지수¹⁾ [그림 9] 소비재 수입¹⁾ 및 소매판매액지수¹⁾



주: 1) 원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주: 1) 선박, 항공기 제외 기준
자료: 관세청, 통계청



주: 1) 승용차 제외 기준
자료: 관세청,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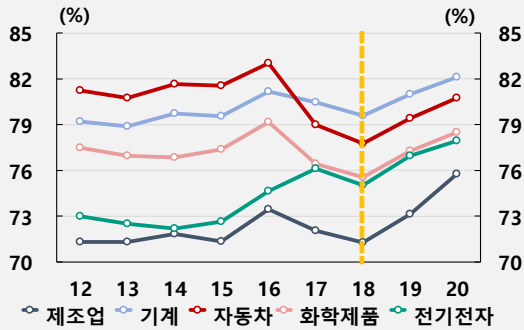
② 구조적 요인 : 중간재 국산화율 상승 등에 따른 수출의 수입유발효과 약화

최근 수입 감소는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수출의 수입유발효과가 약화된 데도 기인한다. 2018년 이후 전기전자¹⁾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국산중간재/(국산+수입중간재))이 상승⁶⁾하고 <그림10> 2020년 이후에는 수출이 반도체·자동차·기계류 등 수출의 수입유발률이 낮은 산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수입 감소에 구조적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11>

6) 2020년 우리 정부는 그간의 사드(THAAD) 갈등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및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2019년)를 계기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전략품목들에 대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일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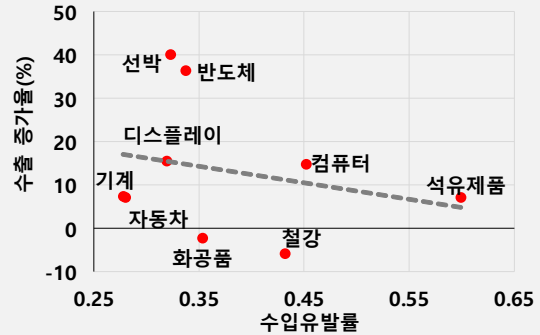
주요 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이 2018년 이후 상승 최근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의 수입유발률이 낮음

[그림 10] 중간재 국산화율¹⁾ 추이



주: 1) 국산중간재/(국산+수입중간재)*100
자료: ADB MRIO

[그림 11] 품목별 수출증가율¹⁾ 및 수입유발률



주: 1) 23.4/4~24.2/4분기중 분기평균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③ 업종별 특이요인: 반도체, 항공기, 신성장산업

반도체, 항공기 등 일부 산업의 특이요인도 수입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투자 속도조절] 최근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에도 반도체 설비투자는 예상보다 부진한데, 이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점유율 확대보다 수익성 제고 노력에 집중하면서 설비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 과거 반도체 기업들은 upcycle에 대응하여 투자를 큰 폭 늘려왔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약한 모습이다. 아울러 AI 관련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대보다 R&D투자에 집중함에 따라 설비투자 여력이 제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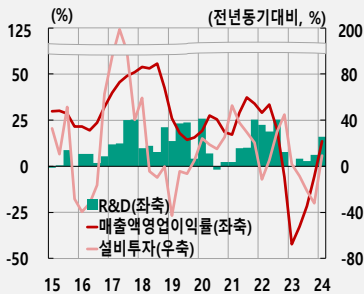
[항공기 도입 지연] 팬데믹 종료 이후 여행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항공기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보잉사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도입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어 운송장비 수입이 감소하였다.

[신성장산업의 대외투자 확대] 2020년 이후 반도체·전기차·배터리를 중심으로 對미 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 설비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자본재 수입 부진이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 주요 신성장산업 기업들의 對미FDI가 빠르게 증가<그림13>하는 반면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2022년 이후 둔화되었다<그림14>.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반도체 산업 의존도^{23년기준 수출비중 38.5%}가 높고 미중 기술분쟁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대만의 경우에도 2020년 이후 對미투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자국내 투자는 둔화<9>되는 모습이다.

7) 반도체업계 모니터링에 따르면 기업들이 후공정 중심의 AI용 고성능 반도체(HBM) 투자에 집중함에 따라 전 공정에 필수적인 고가의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2023년 현재 전체 제조업 설비투자 123조원중 반도체는 20.6%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화학제품 5.3%, 자동차 4.2% 순으로 비중이 높다. (실적 잠정치 기준, KDB산업은행 2023년 설비투자계획조사)
9) 2020~2023년중 대만의 대미FDI는 연평균 356.4% 증가한 반면, 국내설비투자는 6.5% 증가에 그쳤으며, 2023년에는 -19% 감소하였다.

최근 R&D 투자가 설비투자보다 크게 확대

[그림 12] 반도체 매출액영업이익률, 설비투자 및 R&D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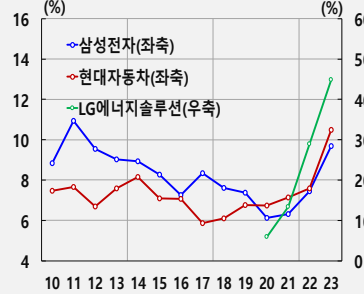


주: 1) 삼성전자(반도체부문)와 SK 하이닉스 합산 기준
2) R&D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기준

자료: 각社 공시자료, Goldman Sachs

주요 기업들의 對미해외투자 증가

[그림 13] 주요 기업의 미주지역¹⁾ 비유동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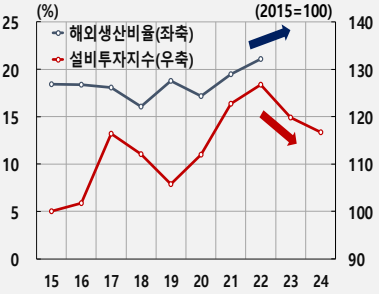


주: 1) 삼성전자 및 LG에너지솔루션은 미주기준, 현대차는 북미기준
2) LG에너지솔루션은 20년 상장

자료: 각社 연간 감사보고서

최근 한국 해외생산이 늘어나고 국내설비투자는 둔화

[그림 14] 한국 해외생산비중¹⁾ 및 국내설비투자지수²⁾



주: 1) 해외현지법인 매출액/해외현지+국내법인매출액 (제조업기준)
2) 2024년은 1~5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시사점

최근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감소한 것은 에너지가격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속도 조절, 항공기 도입 차질 등도 과거와는 차별화된 수입부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소비가 물가상승률 둔화 등으로 점차 개선되고 설비투자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 등으로 회복되면서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수입증가 속도는 우리 주요 산업의 국산화율 제고, 해외생산 확대를 감안할 때 수출 증가세에 비해서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경상수지도 당초 예상^{24.5월 전망시 600억달러}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 국내설비투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자본재 수입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자본재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국내투자의 구축을 시사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의 사례¹⁰⁾에서 볼 수 있듯이, 늘어난 대외투자가 국내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확대 및 생산성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에서 고부가가치 중심의 투자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10)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도요타 등 제조기업들의 해외생산기지 확충이 본격화되었으나, 일본 국내에서는 제조업 공동화가 나타나면서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로도 증가가 더딘 모습이다.

<부록 1>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세계경제]

| | (전기대비, %) | 2022 | 2023 | | 2024 | | | | | |
|--------|------------------------|-------|-------|------|------|------|-----|------|-----|-----|
| | | | 연간 | 3/4 | 4/4 | 1/4 | 2/4 | 4월 | 5월 | 6월 |
| 미 국 | GDP성장률 ¹⁾ | 1.9 | 2.5 | 4.9 | 3.4 | 1.4 | .. | - | - | - |
| | 산업생산 ²⁾ | 3.4 | 0.2 | 0.3 | -0.4 | -0.4 | .. | -0.1 | 0.7 | .. |
| | 소매판매 | 8.9 | 3.4 | 1.4 | 0.8 | -0.2 | .. | -0.2 | 0.1 | .. |
| | 소비자물가 ³⁾ | 8.0 | 4.1 | 3.5 | 3.2 | 3.2 | .. | 3.4 | 3.3 | .. |
| | 비농업취업자수 증감(천명) | 6,235 | 3,531 | 667 | 617 | 771 | 607 | 108 | 218 | 206 |
| EU | GDP성장률 | 3.4 | 0.5 | 0.0 | -0.1 | 0.3 | .. | - | - | - |
| | 산업생산 ²⁾ | 2.2 | -2.3 | -2.0 | -0.2 | -0.9 | .. | -0.1 | .. | .. |
| | 소매판매 | 0.9 | -2.0 | -0.3 | 0.3 | 0.0 | .. | -0.2 | 0.1 | .. |
| | 통관수출 ⁶⁾ | 18.2 | -0.8 | -0.8 | 0.6 | 0.8 | .. | 3.1 | .. | .. |
| | 소비자물가 ³⁾ | 8.4 | 5.4 | 5.0 | 2.7 | 2.6 | 2.5 | 2.4 | 2.6 | 2.5 |
| 중 국 | GDP성장률 ²⁾ | 3.0 | 5.2 | 4.9 | 5.2 | 5.3 | .. | - | - | - |
| | 산업생산 ²⁾³⁾⁴⁾ | 3.6 | 4.6 | 4.2 | 6.0 | 6.1 | .. | 6.7 | 5.6 | .. |
| | 소매판매 ³⁾⁴⁾ | -0.2 | 7.2 | 4.2 | 8.3 | 4.7 | .. | 2.3 | 3.7 | .. |
| | 고정투자 ³⁾⁴⁾⁵⁾ | 5.1 | 3.0 | 3.1 | 3.0 | 4.5 | .. | 4.2 | 4.0 | .. |
| | 통관수출 ³⁾⁴⁾ | 5.6 | -4.7 | -9.9 | -1.3 | 1.4 | .. | 1.4 | 7.6 | .. |
| | 소비자물가 ³⁾ | 2.0 | 0.2 | -0.1 | -0.3 | 0.0 | 0.3 | 0.3 | 0.3 | 0.2 |

주: 1) 전기대비 연율 2) 광공업 기준 3) 전년동기대비 4) 24.2월은 1~2월 누계 기준 5) 누계 기준 6) 역내거래 제외
 자료: Fed, BEA, BLS, Eurostat, 중국국가통계국, 해관총서 등

[국제에너지 가격]

| (기간중 평균) | 2022 | 2023 | | 2024 | | | | | |
|-----------------------|------|------|-----|------|-----|-----|----|----|------------------|
| | | 연간 | 3/4 | 4/4 | 1/4 | 2/4 | 4월 | 5월 | 6월 ³⁾ |
| Dubai유 ¹⁾ | 97 | 82 | 87 | 84 | 81 | 85 | 89 | 84 | 82[87] |
| Brent유 ¹⁾ | 99 | 82 | 86 | 83 | 82 | 85 | 89 | 83 | 83[86] |
| 유럽 천연가스 ²⁾ | 133 | 41 | 34 | 43 | 28 | 32 | 29 | 32 | 34[33] |

주: 1) 달러/배럴 2) 유로/MWh 3) []내는 7.1~9일까지의 평균
 자료: Bloomberg

[국내경제]

| | (전기대비, %) | 2022 | 2023 | | 2024 | | | | | |
|----|--------------------|--------|---------|---------|---------|---------|--------|--------|--------|--------|
| | | | 연간 | 3/4 | 4/4 | 1/4 | 2/4 | 4월 | 5월 | 6월 |
| 성장 | GDP 성장률 | 2.7 | 1.4 | 0.8 | 0.5 | 1.3 | .. | - | - | - |
| | 소매판매액 (전년동기대비) | -0.3 | -1.5 | -1.9 | 0.4 | -0.5 | .. | -0.8 | -0.2 | .. |
| | | | | (-2.7) | (-1.9) | (-2.1) | .. | (-2.2) | (-3.1) | .. |
| | 설비투자지수 (전년동기대비) | 3.3 | -5.4 | -3.1 | 3.1 | -1.1 | .. | -0.3 | -4.1 | .. |
| | | | | (-10.7) | (-8.5) | (-0.7) | .. | (-2.2) | (-5.1) | .. |
| | 건설기성액 (전년동기대비) | 2.8 | 7.3 | 1.1 | -2.5 | 4.9 | .. | 4.2 | -4.6 | .. |
| | | | (10.1) | (0.6) | (4.1) | .. | (-0.1) | (-3.8) | .. | |
| | 통관수출(억\$) | 6,836 | 6,322 | 1,571 | 1,681 | 1,635 | 1,713 | 562 | 580 | 571 |
| | (전년동기대비) | (6.1) | (-7.5) | (-9.7) | (5.7) | (8.1) | (10.0) | (13.6) | (11.5) | (5.1) |
| | 통관수입(억\$) | 7,314 | 6,426 | 1,507 | 1,586 | 1,547 | 1,570 | 547 | 532 | 491 |
| | (전년동기대비) | (18.9) | (-12.1) | (-21.6) | (-10.7) | (-11.1) | (-1.4) | (5.4) | (-2.0) | (-7.5)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관세청

| | (전년동기대비, %) | 2022 | 2023 | | 2024 | | | | | |
|------|--------------------|------|------|------|------|------|------|------|-----|-----|
| | | | 연간 | 3/4 | 4/4 | 1/4 | 2/4 | 4월 | 5월 | 6월 |
| 물가 | 소비자물가 | 5.1 | 3.6 | 3.1 | 3.4 | 3.0 | 2.7 | 2.9 | 2.7 | 2.4 |
| | 근원물가 ¹⁾ | 3.6 | 3.4 | 3.2 | 2.9 | 2.5 | 2.2 | 2.3 | 2.2 | 2.2 |
| 경상수지 | 경상수지(억\$) | 258 | 355 | 156 | 187 | 168 | .. | -3 | 89 | .. |
| | 상품 | 156 | 341 | 171 | 203 | 189 | .. | 51 | 88 | .. |
| | 서비스 | -73 | -257 | -73 | -60 | -69 | .. | -17 | -13 | .. |
| | 본원·이전 | 175 | 271 | 58 | 44 | 48 | .. | -37 | 15 | .. |
| 고용 | 취업자수 증감 (만명) | 81.6 | 32.7 | 26.3 | 30.3 | 29.4 | 14.6 | 26.1 | 8.0 | 9.6 |
| | 실업률(S.A, %) | 2.9 | 2.7 | 2.6 | 2.8 | 2.8 | 2.8 | 2.8 | 2.8 | 2.8 |

주: 1) 에너지, 식료품 제외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부록 2> 주요 이슈 분석목록
(경제전망보고서 Indigo Book · 경제상황 평가)

| 수록호 | 제 목 | 작성부서/팀 | 대표저자 |
|------------------|---|----------------|------|
| 2023.5월 | <input type="checkbox"/> BOX 한·일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평가 | 국제무역팀 | 김상훈 |
| | <input type="checkbox"/> BOX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의 물가 영향 및 주요국 비교 | 물가동향팀 | 임웅지 |
| | <input type="checkbox"/> BOX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 물가연구팀 | 채민석 |
| | 핵심이슈 금리인상 이후 우리경제 평가 및 시사점 | 조사총괄팀 | 송병호 |
| | 핵심이슈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 | 동향분석팀 | 박성하 |
| 8월 | <input type="checkbox"/> BOX 민간소비 회복 모멘텀에 대한 평가 | 동향분석팀 | 정동재 |
| | <input type="checkbox"/> BOX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 국제무역팀 동향분석팀 | 이승호 |
| | <input type="checkbox"/> BOX 국내외 식료품물가(food inflation) 흐름 평가 및 리스크 요인 | 물가동향팀 | 이동재 |
| | 핵심이슈 글로벌 제조업 경기 평가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 국제무역팀 국제경제부 | 손민규 |
| 11월 | <input type="checkbox"/> BOX 주요국 물가 상황 비교 | 물가동향팀 | 임웅지 |
| | <input type="checkbox"/> BOX 최근 수출 개선흐름 점검 및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 | 국제무역팀 | 남석모 |
| | <input type="checkbox"/> BOX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 | 미국유럽경제팀 | 김민수 |
| | 핵심이슈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 조사국 경제통계국 | 김보성 |
| |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 경제연구원 조사국 | 황인도 |
| 2024.2월 | <input type="checkbox"/> BOX 우리나라의 對아세안5 수출 특징 및 향후 전망 | 국제무역팀 | 남석모 |
| | <input type="checkbox"/> BOX 최근 한국·미국·유로지역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평가 | 물가동향팀 | 임웅지 |
| | 핵심이슈 가계별 금리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 거시분석팀 경기동향팀 | 정동재 |
| 5월 | <input type="checkbox"/> BOX 최근 G2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국제경제부 | 최병재 |
| | <input type="checkbox"/> BOX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 경기동향팀 | 최영우 |
| | 핵심이슈 고물가와 소비: 가계의 소비바스켓과 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 거시분석팀 모형전망팀 | 정동재 |
| | 중장기 심층연구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 경제연구원 | 조태형 |
| 7월 ¹⁾ | <input type="checkbox"/> BOX 최근 수출 개선에도 수입이 부진한 배경 | 국제무역팀 | 남석모 |

주: 1) 2024.7월부터 경제상황 평가에도 주요 이슈분석을 새롭게 확충하였습니다.